濟大新報

發行 編輯 兼印刷人 文鍾哲
主幹 姜通源
編輯局長 許泰憲

所發行 濟大新報社
濟州市龍潭洞五八一
電話438.43

印刷 韓一印刷社
濟市三徒一洞931
TEL 931

學訓

一、純粹性의堅持
二、自主性의確立
三、時代精神의創造
四、開拓者로서의實踐

흙으로 가는 奉仕의 손길

總團후원, 綠思會등 各써클서

夏期放學을 맞아 總學生會의 후원을 얻고 녹사회를 비롯한 여러 써크에서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중순에 걸쳐 대대적인 農村奉仕活動을 展開하여 落後한 本道의 농어촌에 光明을 불어 넣어 學生活動에 큰 의의를 마련했다.

지난 7월 31일 서 綠思會(會長 金載洙)에서 10여일간 濟州市 변두리村을 巡廻하면서 봉사활동을 벌였는데 特히 市管內인 禾北洞 파禾水洞을 中心으로 아침 5시30분부터 분간은 全會員들이 로청소에 나섰고 오전 10시서 오후 5시까지는 각동별로 농촌어린이들을 몰아 탁아소를 設置 이들 아동들을 돌보면서 각종질병의 치료 노래 무용등을 가리치는등 아동교육에도 크게 기여했바 있다. 또한 각 농촌을 순회하면서 우물청소 동리사람들을 몰아 이발을 실시하고 질병치료한다음 저녁 8시부터는 불우 아동들을 몰아 공부를 가르치는 등 아동교육에 큰 외의를 몰아 농촌계몽에 關한 강좌와 좌담을 하는등 흙으로 뻗은 奉仕의 손길은 마냥 일손이 모자라 會員들은 잠을 못자보는 고된 난날을 농촌에 바쳤다.

또한 天帝學友會 文化會 칼리오페 濟州道問題硏究會等 多數의 써클에서도 南北郡 各地에서 農漁村계몽에 나섰으며 이들은 주로 농촌계몽강연 각종질병사예방및치료등 귀한 봉사의손길을 펴 이곳 저곳에서 격찬의 소리와 함께 해마다 찾아줄것을 기대하는 각지주민들의 환성이 빗발쳐왔다.

特히 綠思會에서는 이기간중 大韓赤十字社 濟州支社의 協助를 힘입어 각종의료 약품을 지원받았으며 總學生會의적극적인 뒷받침으로 이들全써클은눈부신 活動相을 보임으로써 공을과시 地域社會의指導者的 소양을 충분히 보여준것이다.

<綠思會員들이 어린이들을 치료하고 있다>

<녹사회가 봉사한 탁아소 어린이들>

圖書費引上

二學期서二百원

31日 부속도서관에서 전하는바에 의하면 오는 二學期부터는 도서비가 二百원을 더 인상징수할 계획이다.

지난 三月 一학기부터 一백원씩 징수하던 도서비가 二百원을 同 도서비가 二百원을 더인상징수케 됨으로인해 三百원을 반게되는 것이다.

한편 도서관칙은 전기한 二百원선을 더징수치 않고는 도서관운영과 도서구입에 전연 손을 쓸수가 없어 부득이 인상조처한것이라고 밝히고 인상된 三百원선에서 앞으로의인상징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他大學에비해 최저선을 징수하고 있음은 本大學生들이가 정적으로 풍부치 못하고 있음을 감안했다고 그런데 他大學에서는 최고 七〇〇원선 최저三〇〇원선까지 도서비를 징수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學事歷發表

大學一年間의중요目錄

敎務課당국은 대학의 一年을 가름할 각종행사를 비롯한 **諸般 重要實施日程**인 **學事歷**을 發表했다.

지난 三月부터 來年 新學期까지 實施케될주요目錄을 보면 다음과 같다.

◎月別 學事歷

三月—二日—개강·六日—入學式·二日~六日—수강카드등록

五月—一日~六日—중간고사(일주일간)

七月—10日~15日—학기말고사·20日~八月31日까지 하기방학·一日~15日—제二學期 교과過程提出期間

九月—一日개강·一日~六日—수강등록(일주일간)

十月—16日~21日—중간고사·30日~12월九日까지 교생실습

12月—18日~23日까지 학기말 시험·25日부터 동계방학실시—七일~23日까지 68學年度 敎科過程提出

68年—二月中졸업식및 입학시험 실시

學訓團生위문

梁學生課長등三名

지난 七月16日서 八月 14日까지 四주간에 걸쳐 光州31예비사단에서 실시되고있는 第一二八學訓團생들을 위문하려 梁重海 學生課長을 비롯한 학생과職員 二名이 31사에 다녀왔다.

찌는듯한 太陽아래불볕을 받으며 땀흘리는 學訓團생들을 만나고 잠시 휴식을 즐기며 내어 준 호뭇한 時간을보학훈단생들의 사돈구고 돌아왔다.

(문홍주문교부장관)
지난八日 全國各大學

"學園을正常化하라"

文文敎部長官全國總學長會議서指示

總學長會議가 중앙청 제一회의실에서 열려文學長이참가코돌아왔다.

이날 문홍주 文敎部長官은 지시를 통해① 학생지도에관한대책 ② 학생병사업무에 관한대책사항들을 지시했는데 特히 학생지도에 관한 대책사항에서 ①개학후 대책 五가지를 지시하는한편 ②전교수진의협력기구와 학생지도 체제의 강화대책에 ㄱ、 全교수가 학생지도에참여케 하는 협력기구의 신설 ㄴ、개별적 지도교수제의 채택 ㄷ、과주임교수의 책임지도제의 학원정상화를 위한 ③공부하는 교수의 기풍조성에관한 대책에서 '출석을 강조하고 시하는 인식촉진 ㄴ、중예습순회의 중시및강조 ㄷ、연구발표의 활발한 전개 ㄹ、과거의 실적 소개 ㅁ、과별실적 평가및종합평가의공고이다 등 학생지도위원회 설치 ㅁ、기타학생 지도를위한 교수및 동창회의합동지도위원회 구성과학생및 교수강의 공개토론기회마련등이며 ③공부하는 교수의 기풍조성에관한 대책에서 '출석을 강조하고 시하는 인식촉진 ㄴ、중예습순회의 중시및강조 ㄷ、연구발표의 활발한 전개 ㄹ、과거의 실적 소개 ㅁ、과별실적 평가및종합평가의공고이다

활짝열린캠퍼스

21日開講、23日서期末시험실시

學校當局도 이러한학내분위기와 학생들의動向에 만족、모자란 수업일수를 메꾸고、들떴던 머리를 식혀 차분히 학업에 임할수 있도록 諸般 방책을 강구하는 한편 학생들에게도 이 이상의 과격한 행동은 삼가하여 충실한 학업을 기해주길 당부했다.

또한 梁學生課長은 담화를 발표하고「학생들은 그동안 뜨거운 태양아래서 검게 탄얼굴로 자기충실에 열중하여 보람된 휴가를 얻고、이제 등교하였으니 보다 냉정과 理性을견지하여 지성다운 행동으로 학업에 열중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하고「여러분들은 지난날 많이의 주장했고、많이의 쳤으며 많이 행동했으므로 이제는 本然에서 스스로 해야할 주어진 과제를 풀어나가야 할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학교당국은앞으로 학생들이 그本然을 이탈시에는 상당한 제재를 가할 方針인것으로 보인다.

故洪奉協소위 手記出刊

지난 66年度 光州31예비사단에서 하기병영훈련중 순직한 故洪奉協소위의 手記가 冊子로—發刊되어 나왔다.

31예사 政訓部가 주선、本大學의 故洪소위추모위원회가 편집하여 출간되었는데 表題는「겨레를 울린 파도」—百七〇面에 값은 一百五〇원이다.

反共講演할計劃

姜宗豪學生會長敎育끝내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一주일동안에 걸쳐 반공사상교육이 서울 반공자유센타에서실시됨에 따라 강종호총학생회장이 교육받고돌아왔다.

반공연맹이 주최한同敎育기간중에는 우리나라의 반공의 중요성과 반공아울러 여러가지 에관한 내용을 교육했다.

이 교육에는 全國各大學 學생會長團 一百餘名이 참가(종합、단과、교육대학을 비롯한 포함)했는데이 기간중 임시 전국학생 회장단 임시정부회장선출에서 강종호會長은부회장으로 뽑혀 되찾긴 했으나 기를 느닷없이 앞당겨 드리닥친 서에는 全學生들의심금을 울리고도 남음이 있었는데 P科Y君 曰「이것도 데모방지책의 일환인 모양이우다 예?」하는 선견지명에 S科某君도 덩달아「하기야 方法이 없어 그렇지 막을 도리만 있다면 야 外國產을 導入해서라도 대대적으로보급을 하고 싶은 심정일텐데뭐。」점잖은 一針。

가난한 집안살림이 지만 등록금파동을앞 당겨 치뤄 두면 九月은「學生의달」—「평가의달」—그러다가「관職의달」로 정합시다

期限內이행토록촉구

登錄金2日, 受講申請12日限

大學當局은 지난 21日부터 開學됨에따라 二期分 등록금을 오는 九月二日限、受講申請카드는12日까지 수및 접수토록했다.

서무과 당국에의하면 二期분 등록금은 21日부터九月二日까지 完納해야하며이기간、동안에未納된者는모두제적을단행할 방침임을 밝혔으며、敎務課當局은 二학기 수강카드를 오는九月十二日까지 전원 제출토록 당부했는데、이들 등록금및 수강카드를 同期間內에 이행치 않을때는學則에 依據 除籍또는 二學期 수강자격을부여치않을방침이라고강경하게비쳤다

아기업게가 九月은 觀戰의 힘들어서 달로

春秋子濟

◎…總學生會 후원을 얻고 제주시 번두리촌을 돌며 달이념도록 奉仕活動을벌여온 「록사회」에서는 住民들의대단한 칭송과함께큰보람을 얻은모양。金載洙會長은 每日같이會員들을 거느리고 아침五時부터 10時까지 가로청소、오후五時까지는 탁아소를 만들어 어린이들을 돌보고 치료하고、우물청소등 큰 실적을 남겼다고 자랑을했는데 아닌게 아니라 써클로써는 大行事임에는 틀림없는 世評이다.

그런데 탁아소를경영(?)하던 어느날한 노파가 金會長에게한다는 칭찬이 걸작인데「아이구 아이들도 잘 돌밥신게—집이서도 아이업게질을 많이 해낸 모양이라」는데는 아연 실색했다고。

春秋子에게 하는金군의 억울(?)한진정 內容은「참、아이업게가 뭐니까? 아이업게가」였으나 역시 아 앉지를 않고 있었다。

23日 첫날의 시험풍경은 대략 요약해 본다면「아이구—이놈의 시험지옥은 언제 벗어나나?」정도로 묵묵히 입을 다물고 노트읽기에 여념이 없는 왕년의行動實力가들과「데모를 하기휴가로 돌연한 되었고、期末시험은八月로 이월되고 말았다。

▼…그 사람의 一生은 어떻게 살았냐—얼마나 위대한가는줄 어봐야 안다는 말이 있다。

하나의 現實이거나 어떤 事態도 지나고 봐야 그위업의 진위가 가려지기 마련이다。四、一九가 그렇고、三、一運動이 그렇고……。헤아릴수없는 많은사건과 人物들이 歷史의 페이지를 장식하며 오늘의 우리를 敎訓하고 있는것이다。

▼…물론 성급한자는 당장에 史的比重을規定지우려 여러가지定義를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規定일수가 드물다。문제는 다만 그 現實에、그事態에 處한 現實人으로써 어떻게 판단했고 어떻게 行動했느냐가 問題다。

▼국가적인 중대혼란상태를 좌시할수 없음도 學生들의 관단이요、가로를 누비며 외쳤음도 우리들의行動했음이다。

결과는 훗날 歷史에는 나타나지 않은다손치드라도、이는소리없는 메아리가 되어 남을것이며、우리의、民主主義는 차츰 시행착오의 어느선에서 조금씩은 정착되어 갈것임으로 우리들은 참여했다。

▼…그것으로써 그意義는 충분한것이요、할일을 그만큼 해낸것이다。

가슴을 식히고 저산을 보자 파란 물결이 흰거품을 일구는 조용한 포구마을에는 있어야할 가난한 웃음보다 한숨이 일고 있는데—우리의 일손은 잠시 붓과책에서 더러는 멈추고 봉사의 대열을 정비하는일도 무거운 소임일께다。

이름없이 사장되어가는 文化財의 재발현과、드높은 산과바다에서 참음의 긍지를 키워보는 일도七月에 마련해야 할우리의 소임이다。

▼현실은 개탄보다정수를 뚫어보는 理性의 불꽃이 앞서야하고、大學의 영원한것발은 우리들의 思考와 行動에 드높이평가받는 일이 있음을 보아야 한다。

▼…全國的으로 파급된 데모사태로 大學은 서리맞은 풀잎처럼 能을 잃고 그 機

평두요

街道에서 외침으로大學의 七月은 시작되었고또 끝을 고했다 六日부터는 돌연한 되었고、期末시험은八月로 이월되고 말았다。

▼…그 사람의 一生은 어떻게 살았냐—얼마나 위대한가는줄 어봐야 안다는 말이 있다。

하나의 現實이거나 어떤 事態도 지나고 봐야 그위업의 진위가 가려지기 마련이다。四、一九가 그렇고、三、一運動이 그렇고……。헤아릴수없는 많은사건과 人物들이 歷史의 페이지를 장식하며 오늘의 우리를 敎訓하고 있는것이다。

▼…물론 성급한자는 당장에 史的比重을規定지우려 여러가지定義를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規定일수가 드물다。문제는 다만 그 現實에、그事態에 處한 現實人으로써 어떻게 판단했고 어떻게 行動했느냐가 問題다。

▼국가적인 중대혼란상태를 좌시할수 없음도 學生들의 관단이요、가로를 누비며 외쳤음도 우리들의行動했음이다。

결과는 훗날 歷史에는 나타나지 않은다손치드라도、이는소리없는 메아리가 되어 남을것이며、우리의、民主主義는 차츰 시행착오의 어느선에서 조금씩은 정착되어 갈것임으로 우리들은 참여했다。

▼…그것으로써 그意義는 충분한것이요、할일을 그만큼 해낸것이다。

가슴을 식히고 저산을 보자 파란 물결이 흰거품을 일구는 조용한 포구마을에는 있어야할 가난한 웃음보다 한숨이 일고 있는데—우리의 일손은 잠시 붓과책에서 더러는 멈추고 봉사의 대열을 정비하는일도 무거운 소임일께다。

이름없이 사장되어가는 文化財의 재발현과、드높은 산과바다에서 참음의 긍지를 키워보는 일도七月에 마련해야 할우리의 소임이다。

▼현실은 개탄보다정수를 뚫어보는 理性의 불꽃이 앞서야하고、大學의 영원한것발은 우리들의 思考와 行動에 드높이평가받는 일이 있음을 보아야 한다。

社說

現生學會 一年의 決算

이달로써 現學生會의 任期는 모두 끝나고 新任期가 시작되는 달이다。

學生活動은 極히 시행착오를 범하거나 또는學生活動의 見習으로 끝나게 되는 不合理한 實態에 놓여있다。

언제나 그렇지만 처음그所任을 맡게 되면 여러가지 포부와計劃에 가슴이 부풀고 그런 남어지 實現性없는 計劃이거나 아니면과잉한 의욕으로 차있게마련이어서 半年만 넘기고보면 거의가 시들한 空約으로 化하게 되는 수가許多함을보게된다。

事實어지 學生會의 任期 一年은 어찌 보면 너무짧고 게다가 制限된 예산때문에 學生活動은 極히 시행착오를 범하거나 또는學生活動의 見習으로 끝나게 되는 不合理한 實態에 놓여있다。

이처럼 短期間의 時間에 별로 쌓지못한 學生活動의 經驗과 各任員들의 相互非協助、各會員들의 不參與等으로 원만하고 合理的인學生活動을 기하기란 참으로 어려운것임을 우리도 잘알고 있다。

그러나 不斷한 努力과창의성을 발휘하여 豫算에알맞고 大學이 處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고、會員및 교수、大學當局의 要求하고 있는 重要하고도 큰 問題点을 찾아서 이들 과감하게 實現할 수있는 能力발굴에 最善을 다해야 할것이요、또한 이들 三者間의 가교적 역할로써의 기능과 大學에 있어서의 學生活動의 重要性을 認識하고、民主的市民의、資質을 터득하는데 그意義를두어 大學이 永久的이고 傳統的인 터전수립을 위한 정지작업에앞장서야만 한다는것은 재론을 要치 않을줄 안다。

지난 一年間 現學生會의 活動相을 한마디로 말해서「의욕과잉으로 出血을 면치못한 學生會」라 하겠다

당초에 現學生會가 所任을 맡으면서 부터 여러가지 의욕적인 學生活動計劃을 내세웠으나 우리 大學의 地域的性格과 法文、農學部의 分離、學生들이 學生活動에 대한 그릇 認識가 不參與、豫算의 極小한 點等을 철저히 감안치 않고 強行한 의욕은 급기야 出血을 면키 어렵게되고만 것으로 본다。말하자면 차분하게 合理的이고도 實現性있는 계획과 方向을 모색했어야 할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그런데로 大學新聞을 우리大學史上 初有로 月二回의 旬刊을 발행한 점이라든가、連五日間의 開校紀念行事를 무난히 치뤄내고、本大學의 상징으로 傳統化할 수 있는 龍淵夜帆과、뒨대관식、代議員會의 獨立으로 立法機管으로서의 自律的 활동을 수립케한 點等은 괄목할만한 實績이라고 보겠다。

이러한 成果를 마련하면서도 당초에 슬로건으로내걸었던 大學新聞을 獨立하여 自体的으로 運營토록못했던 점과 法文、農學 兩學部의 유대강화策은 아무런 成果를 걷우지 못한것이 무엇보다 가장 失策이요、大學將來를 위해 슬픈일이 아닐 수 없다。

特히 農學部學生會가 十五주년 開校紀念時에도 行事한種目도 主管하지 않고 넘긴 점等을 보면 法文、農學、總團間의 원활한 유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현저한 立證이라 보겠다。

또한 四學年全員、처음으로 全國旅行을 計劃해놓고 물의만 이르키고 實現을 못본것은 가장 안타까운 일중의 하나였다。

이제 任期를 다 끝내놓고、그 공과를 가려보는이 마당에서 어쨋던 學生會員 여러분의 勞苦가 컷으며、많았음을 우리는고 맙게 여기고 있다。

앞으로 말게될 新任學生會에 큰 期待를 걸면서지나친 意慾보다는 차분한大學學生活動의 정지작업을위한 實効性있고 보람찬 계획을 樹立하여 건전한 學生活動을 이룩하기를 우리는 期待하는 바이다。

× × ×

출석카드제實施

時間마다配付、署名捺印

30日 學生課당국에서는 二學期부터 現在교수가 취급하고 있는출석부제를 바꿔 출석카드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講義時間初에 학생과에서 출석인원에 限해 출석카드를 배부하고 시간이 종료되면자기성명과 학과학년을기입한 후에 제출하면、교수는 일괄 확인후 학생과로 보내게 되는것이다。이러한출석카드제를 실시함에따라 강의시작은 10分後에 등교한 지각생은 출석으로 인정치 않을 방침이며 또한 동카드를 침이라고강경하게비쳤다 결석으로 넣는다고 하면서 학생과 당국은 전학생은 한사람도 출결에 철저를期하도록 촉구했다。

× ×

▲결혼답례용 케익 ◎ 선물용보드라운 소프트크림

맛 나 당

七星通 돌채 다방 아랫층

◎잔잔한 음악 ◎향긋한 밀크로 피로를 풀어드립니다

宋錫範 著

濟州島風物

(第一輯) (값一五〇원)

耽羅의 民俗觀光寫眞 四五枚收錄!

濟州道唯一의 觀光案內誌!

本冊子를 願하시는분은 代金을 濟州市二徒一洞一五九六의四 宋錫範 앞으로 보내주시면 즉시 우송해 드립니다

서울 進修堂發行

—— 새로운 시설과 참신한 써비스 최신기술진용인 ——

◎法學科1學年金斗全君이經營하는◎

월성이발관

特히 本大學 교직원과 재학생들에게는 보다염가로 새로운스타일의 멋을꾸며드립니다 꼭 왕림 하시요 <七星通東一食堂옆>

申相俊 著

——最新豫算編成 必須書——

韓國豫算形成論

主要目次

第一章 韓國의 生態的인 價値觀
第二章 現代政府의 役割構造와 韓國政府의 使命
第三章 政府豫算의 性格과 韓國정부 예산형성 指標
第四章 政府豫算과 정치적, 統合, 調整의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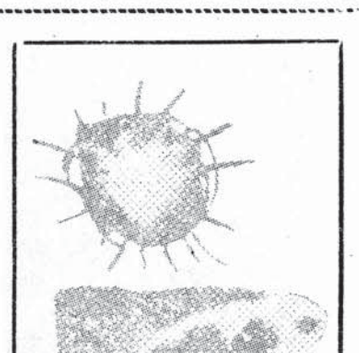
供給處 서울 韓國出版協同組合 3,50원

新潮文化社發行

필수교수

「長期展望」의 꿈

金 仁 濟



컷·김 용 길 畫

앞으로 三十三年 뒤인 西紀二〇〇〇年에는 한국은 人口가 一億五千萬이 될것이고 個人所得額은 一年에 四千弗로 增大하여 大量消費体制를 갖춘 아시아의 先進工業國가로 등장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굉장한 꿈이라고웃을 것이다。그러나 이말은 지난 四月에 美國의經濟學者인「허만·칸」이란 분이주장한 바다。近聞 政府를 위시하여 각종 企業体、團体에 이르기 까지무슨 五個年計劃이니 무슨 開發 十個年計劃이니하고 長期展望이 流行처럼 되고 있는 상 日前에 共和黨 政策研究室에서 내논 中間報告書는 一九八六年까지 인구는 四〇〇〇萬으로 늘고 一人當 國民生産은 三五〇弗로 增大할것이라고 前提하고 九年制義務敎育이 실시되고 한世帶에 住宅 하나꼴로 住宅難이 解消되고、노동생산성이 三倍로 引上되어 完全雇傭이 가능케 된다는것이다。農村에 있어선 水利安全畓과 耕地整理가 完成되며 전국의 푸른 山河가 되며 安定農가가 二百萬戶가 된다는 등의 例示이다。

이쯤되면 豊饒한 社會는 말로 듣는데서 現實로 나타날것이고、福祉國가가 손에 잡힐듯 한 한 一種의 꿈이 아니可能性이 있는 꿈이 일 것인데 이렇게 未來를 내다보는 것이 요즘 사람의 자세인듯싶다。

그런데 夏期休暇로접어들자 아이들이 海水浴場엘 가보자고 조른다。구미자 댕기는 諸유場行이다。허지만 가노라오노라 왕복의 버스안의 情景을 생각하면 이내 멀미가 난다。아이들은 해수욕장行이 아니되는 경우면「선풍기」라도하나 들여 놓자는 協商을 하는 것이다。그러나 이말은 지난 四月에 美國의經濟學者인「허만·칸」이란 분이주장한 바다。近聞 政府를 위시하여 각종 企業体、團体에 이르기 까지무슨 五個年計劃이니 무슨 開發 十個年計劃이니하고 長期展望이 流行처럼 되고 있는 상 대기해 있어서 무료도 가고 싶은 곳까지 달 수 있는 제도가 생기 지말란 법도 없을게고 공원에 놀러가는 것이 無料이듯이 映畵館이나 맥주홀、당구장에 들어가는 것도 무료로되고 시원히 트인 콘크리트장에서도 공짜로 즐길 수 있다。그러기 위해서마 치 兵役義務를 치르듯 一定期間동안만 生産工場이나 써비스工場에서 일을 해주면 足하게 되는 때의 꿈이 일해야 하는 時間보다 놀아야 할 시간이 많아지면 그 많은 노는 시간을 처리하기위한敎育方法도 아주 달라지겠지。그 주체 못하는 餘暇를善用하는방도와 내책에 큰關心을 모으겠지。

空想도 무료해져 신문을 펴들고 社會面에 눈을 주었더니 올 여름에 들어서 거이 날마다지만「自殺」한 記事가 번거롭다 老人이 投身自殺이 있는가하면 天地淵에선 處女가 투신하여「早退人生」으로 投降하였다하며 이 世上에서 맺어지지 못한 結婚을 저 世上에서맺자는 맹서하에 狹才海水浴場에서 處女總角이